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이종운
편집인:나희주
편집주간:원필현
발행처:서울장로교회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5
FAX: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새벽 홍해 작전 시작

'93 홍해작전이 오늘(6월 6일) 새벽 5시를 기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 대행진을 시작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신앙의 길에 가로놓인 홍해를 건너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교회적으로 모아져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벽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온 성도와 교회는 갱신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1. 주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2. 표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3. 찬송: 245(시온성과 같은 교회)
4. 일시: 1993. 6. 6(주일)~20일(주일) 매일 새벽 5시
5. 목적: 말씀의 재발견과 영적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세워드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의 건축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복음화, 국가와 세계를 향한 서울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교인이 진심으로 7대 기도제목을 갖고 합심기도한다.
6. 행동강령: ① 기도의 불씨가 된다.
②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
③ 이 복음을 위하여 살자.

7. 7대 기도제목

- ①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 ②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주시고 몸되신 서울장로교회를 통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 ③주여 행하소서.
개인과 가정,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주님의 권능으로 갈라지게 하옵소서.
- ④주여 이루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감당케 하옵소서.
- ⑤주여 인도하소서.
굽은 것을 바로잡고 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생명을 약동케 하는 개혁의 운동이 교회에서 처럼 국가적으로도 성공되게 하옵소서.
- ⑥주여 만드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새역사를 창조하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 ⑦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주의 하시는 일을 이 수년 내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치세미나 수료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이종운 목사)이 주관했던 제4차 김치세미나가 지난 6월 2일(수) 9일간의 일정을 수료 I부 예배에서 수료식을 가짐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번 세미나는 아프리카 21개국 29의 교역자및 영적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교계의 주요 인사들의 열띤 강의와 한국기독교의 현장들을 답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사와 성장의 단면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아프리카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도전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

- 

관아의
영소리
- ☐...홍해작전 개시 -아프리카에 건너간 복음의 불씨가 아프리카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 ☐...기도는 영적 결실을 맺게하는 신성한 노동이다. 홍해를 가르는 기도예 전심전력하라.

그동안 전체 진행을 맡아 주셨던 킨슬러 목사는 수료식에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의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함께 담대하게 나가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역사를 이룰 것을 말하며, 교회 갱신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KIMCHE세미나 반응들

—다음의 글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 제4차 김치세미나 참석자들의 소감을 적은 것이다.—

요람 음베바 감독(탄자니아)

풍성한 인적자원과 헌신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락방 운동과 새벽기도회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전략으로 믿고 반드시 실천하고자 한다. 이종운 목사가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소서!

이마칸도 요셉 목사(잠비아)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준 세미나였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생신의 지름길이 되고 통성기도로 영적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뻐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보겠다.

베르크 골레 목사(에디오피아)

새벽기도회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주님이 주신 비전에 절대 순종할 것이며 세계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특히 고난 속에서 영광을 얻은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고난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 성도들의 친절과 봉사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감동을 받았다.

응비자 음칸드라 목사

(잠비아)

김치세미나를 통해 내 영혼이 맑아졌다.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

님 말씀을 강조한 것은 나의 목회를 갱신시킬 것이다. 한국인은 자기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임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국민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장로교회에 진 사랑의 빛을 내 조국에 가서 복음으로 갠해보겠다.

요셉 모레나마멜레 목사

(레조토)

이종운 목사를 통해 세계선교의 비전을 받은 서울장로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들의 생동력있는 신앙의 열매를 맛보면서 김치세미나가 세계선교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다니엘 기마두 목사(우간다)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특히 서울교회를 세우신 것을 확인하였다. 김치세미나의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의 잘 훈련 받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연세대 아펜 헬러 선교관 앞에 선 아프리카 목회자들.

후레드 딕 베 목사(가나)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내게 무서운 충격을 안겨준 김치세미나는 가나 민족복음화에 새로운 불을 던졌다고 본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로우렌스 모고에라 목사

(남 아프리카)

초대교회와 방불한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 말씀위에 세워진 서울장로교회를 통해 나는 많은 도전을 받고 헌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백성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비법을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압살롬 드라마니 목사

(스와질랜드)

새벽기도회 참여와 기도원 경험은 내 신앙에 놀라운 충격과 변화를 주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헌신, 특히 새벽 찬양대원들의 눈동자는 하늘의 천사보다 아름다웠다. 전국에서 온 목회자세미나

알렉스 장템 목사(카메룬)

비전과 기도의 폭을 넓혀준 김치세미나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책임지고 있는 나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성경적 설교를 하신 이종운 목사를 존경하고 싶다.

요한 오보케 목사(우간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간다 최대의 교회로 청빙받은지 2년이 되었다. 나는 선임자와의 갈등으로 내가 받은 비전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던 중 김치세미나는 나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윌리엄 투이미싱 목사(케냐)

영적이고 교육적이며 많은 것을 보여준 김치세미나를 통해 기도의 능력 특히 새벽기도를 배웠다. 목회자의 모범적 생활과 성도들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였다.

무카투 테이 목사(에디오피아)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다. 공회에서 사랑의 꽃을 받은 시간부터 때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 아름답고 수준높은 호텔, 언어의 벽을 넘는 사랑의 웃음과 친절,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와 가르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존슨 아데시나 목사
(나이제리아)

불타는 기도 열성, 성경적 설교, 주는 기쁨, 주님과 주의 명하심에 헌신, 애국심과 국가적 긍지, 젊은이에 대한 관심은 김치세미나를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물이다.

휘춘 음비자 목사(잠비아)

교회성장과 갱신은 반드시 성경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송두리채 엮어버린 것이 되었다. 오는 6월 8일부터 3일간 잠비아 목회자 총회시에 내가 해야 할 말을 찾았다. 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고 성경공부반 증설을 하여 복음을 확장시키겠다.

모세스 무자 목사(보츠와나)

수난과 슬픔중에서 일어난 한국교회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새벽기도회가 한국인의 영적 생명줄임을 발견한 순간 나는 김치세미나를 통해 나의 조국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마조리에 후로이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교회에 축복을 하시려고 한국교회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는 교회상을 강력하게 보여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리를 드립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현충만찬.

이삭 캄와나 목사(말라위)

새벽마다 이슬비처럼 내 영혼을 적셔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목사님과 내게 목회의 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강사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립니다.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나의 조국에 가서 마음껏 실천하려고 합니다.

마리오 마하체 목사(모잠비크)

교회의 모든 문제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린다는 진리와 서울교회 장애인 프로그램, 기독교대학을 세워 사회를 새롭게 한 한국에 온 선교자들의 고귀한 열매는 모두 한결같이 성경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목회자세미나에서의 모습.

시드온 하비아리마나 목사
(브룬디)

한국교회는 오늘날 세계 교회의 스승이 되었다. 백인들의 복음으로만 생각했던 지난날의 편견은 한국교회에 의해 완전히 깨어졌다. 김치세미나를 통해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한국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디모데 타바지바 목사
(짐바브웨)

개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역할

과 모델을 서울장로교회를 통해 찾았습니다. 내 고향에 돌아가면 흥해작전, 청년프로그램, 목회자 세미나와 교회개혁 운동을 할 것입니다.

휴 웨트모어 목사(남아프리카)

기도와 다락방 운동의 강조와 고난받은 한국교회상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교회 성장에 귀한 씨앗이 됨을 아프리카 교회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남아공의 잡지들을 통해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원리들을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릴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들로부터

터 양같은 대접을 받을 때는 천국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비마나 길버트 목사(르완다)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주님의 비유처럼 사랑으로 수료증까지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운 목사님의 마지막 강의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쥬리스 란드리안조아리 목사
(마다가스카)

박해와 고난속에서 솟아오른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전진기지화 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테 오쿰바(가봉)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 하는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식과 영력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 배

출이 아프리카 교회의 급선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초대교회같은 서울교회의 미래 사역을 축복합니다.

바코 응 가르디에 목사(차드)

김치세미나의 내용 못지않게 조직과 운영의 묘에 감탄했다. 변화산상의 체험을 한 본인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종교사회적 미숙으로 고민하는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큰 사명을 띄고 가게 되었다. 큰 비전과 지혜와 용기를 준 이중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감사한다.

에드워드 모세 목사
(마우리시우스)

서울장로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닌 우주적(global)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이 어떤 이유로라도 제한(방해)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바톤은 한국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김치세미나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합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워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응동 알로헤 요셉 목사(가봉)

강의를 한 강사님들과 봉사를 하신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경비를 드린 김치세미나가 거룩한 낭비라면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받은 칭찬이 서울장로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소년처럼 눈물이 흘러나와 이를 감추려 했으나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골레(에디오피아)

서울장로교회 여성도들의 봉사활동이 유별나게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전도를 힘차게 하여 그 빛을 갱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칼럼

창조 질서 속의 샬롬

김영한 교수(대학부 지도)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샬롬(shalom)이란 히브리어 말은 평화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이 샬롬이란 말은 평화이상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샬롬은 사물의 완전한 상태를 지칭할 뿐 아니라 관계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세계에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해 내었다. 그리하여 창조물의 상태와 관계는 온전한 질서 속에 있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마치신후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1:31)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완전한 질서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창조물은 샬롬 속에 있다. 창조질서 속에 있는 온전함, 즉 샬롬은 3가지 측면으로 기술되고 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존재”였다. 이 관계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관계였다.

둘째,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이다. 이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의 동등한 관계로서 묘사되고 있다. 첫 남자와 첫 여자는 진정한 동반자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있었다.

셋째, 인간과 자연, 즉 생태계 사이의 온전한 관계이다. 이 관계는 아담이 에덴동산을 관리하고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생물이 아담에게 나아오고 아담이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창조질서 속의 샬롬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다. 이 불순종은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오만(hubris)이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인간상호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자연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동산 수풀 속에 숨게되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증오와 폭력의 관계가 야기된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영쾅귀를 낸다. 창조세계의 샬롬이 깨어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는 교훈해준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와 더불어 환경의 파괴가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환경보전운동과 쓰레기 절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보전의 근원적 사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할 때 인간은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유월

김연욱

나의 유월은 홍해작전으로 시작된다. 해마다 경건한 시간인건만 6월 6일이 가까와 오면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홍해를 바라본다.

우리에게 지속되는 안위란 존재치 않는다.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잠시 숨이라도 돌릴라치면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그래서 인생을 고행이라고 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긴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홍해작전 기간 동안 나는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바란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고 스스로 위로했었는데 자그마한 일 앞에서 그만 무너져 버리는 자신을 보며 참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말씀 공부와 기도가 부족해서임을 금방 알게 해주셨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가 있음이다. 때마침 찾아온 기도의 기회를 나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굽이치는 강을 가르리라.

내일 목회자세미나 종강

목회자세미나가 10주간의 교과과정을 은혜 중에 마치고 내일(6월 7일) YMCA 대강당에서 제3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 갱신”이란 주제 하에 데살로니가서를 강해하셨던 이종운

목사를 비롯한 아홉 분의 강사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교역자들이 한국교회 갱신과 미래를 바라보는 사명감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되었던 시간들이었다.

다음 제4학기 개강은 9월초에 있을 예정인데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6월 학습·세례식 예정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23일(수) 수요일, II부 예배시간을 통하여 학습·세례식을 시행하게 한다.

해당자들은 21일(월), 22일(화) 오후 7시에 있게 될 교육과 문답을 위해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기 바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선교대회가 오는 6월 10일(목) 영락교회당에서 모이는데 이종운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와 선교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홍해작전으로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2. KIMCHI세미나의 씨앗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잘 발아 되도록.
3. 목회자세미나의 유종의 미와 갱신의 결실이 이루어 지도록.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